

새로운 학교문화, 책으로 싹틔우자

교과와 연계된 살아 있는 독서 필요... 교육 뒷받침하는 출판유통이 중요

김득순

대구 입석여자중학교 국어교사

21세기는 창의성과 다양성을 요구하는 지식기반의 사회다. 개개인의 지력과 창의력이 삶의 질은 물론 국력까지도 좌우하게 된다. 지금부터라도 학습을 통해 지력과 창의력을 개발해야 하는데, 학교 교육에서 학생들의 모든 학습은 독서에서 출발하고 독서에서 끝을 맺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학습단계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사고력·비판력·창의력 역시 독서를 바탕으로 쌓을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선 학교의 독서교육은 철저히 외면당한 채,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학생과 교사는 입시경쟁에 매달려 있어 개성과 창의성 교육은 요원한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교육부가 '2002학년도 대입시 제도 개선안' 방안을 발표한 것은 뜻 있다. 독서를 바탕으로 한 창의력 교육과 인성 교육이 내실있게 추진된다면 초·중·고 교육이 정상화되고 새로운 학교 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

학교 독서교육의 험난한 현실

학교 독서교육이 어려운 까닭은 많다. 책을 읽지 않는 부모, 책을 읽지 않는 것이 습관화된 학생, 독서라는 말을 꺼내기조차 어려운 교육현실 등 제반상황이 학교 독서교육을 마냥 방치해두고 있다고 말할 정도다. 사실 독서교육은 '교양을 함양하는 수단'이라는 차원을 넘어 지식 정보화 사회의 기본적인 학습수단으로 인식돼야 하는데도 독서란 국어교과에서만 다루는 것이라 생각하는 교사들의 태도 역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파고(Fargo)는 도서관을 '따뜻한 맥박이 뛰고 있는 학교의 심장'이라고 말했다. 도서관은 학생들에게 자주적 학습활동의 기반일 뿐만 아니라 각양각색의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발견과 감동의 기쁨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심장이 멈춘 학교가 많다. 학교 도서관이 아예 없거나 있다 해도 시설이 미비하다. 또 대부분 사서교사가 없어 도서관의 상시 개방이 어렵고 사서업무의 전산화가 이뤄지지 않아 운영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비치된 도서의 질이 기준 이하인데도 신간 도서구입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독서와 교과목의 연계성이

독서를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려는 구체적인 방안이 진행되고 있다. 학급 단위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한다든가 양서목록을 선정해 교육에 활용하는 것 외에 출판계 역시 좋은 책을 손쉽게 싸 값에 구입할 수 있도록 도서유통구조 개선에 힘써야 한다.

부족해 학생들이 도서관을 찾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렇다면 독서교육이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 우선 교과교육과 관련한 독서교육을 해야 한다. 일단 교과서를 중심 자료로 두고 각 단원에 알맞은 독서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교과 담당교사는 교육과정상의 목표와 연관지어 과목별·학년별로 알맞은 독서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독서교육의 질적 수준은 교사의 수준에 달려 있다는 기본적인 인식으로 교육부에서는 교사들의 독서지도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최우선 과제로 실천해간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또한 독서를 중심으로 한 교과수업의 평가를 위해 새로운 독서 평가방법이 적용되고 전 과목별에 걸쳐 독서를 바탕으로 한 교과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과서를 개편하는 연구도 추진중이라 한다.

양서목록 작성은 반드시 필요해

시간과 거리의 제약 때문에 공공도서관이나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학급 단위의 '작은 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때 교과관련 권장 도서목록을 마련하여 제시하면 학생들이 양서를 읽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 또한 학생 개개인과 권장도서를 구입해 서로 바꿔 읽음으로써 장서부족도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하루에 40분간씩 규칙적인 독서시간을 할애해 좋은



학교교육에서 모든 학습은 독서에서 출발해 독서에서 끝을 맺는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독서습관을 몸에 배도록 하고 학교 도서관에서 대출받은 각종 참고도서를 교실 서가에 비치함으로써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1998년 2월, 초·중·고등학교의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조직된 '독서교육발전전문위원회'는 '어떤 책을 읽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제기했다. 민간 독서운동단체, 출판업계, 일선 교사들의 독서교육 관련 모임 등에서 그간 축적해 온 도서선정 기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빠른 시일 내에 이에 따른 잠정적인 양서목록을 매년 선정해 독서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라 한다. 이렇게 마련한 양서목록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정·증보해나가는 한편, 각종 매스컴을 통해 양서정보를 교사·학생·학부모에게 알리고 양질의 도서공급을 확대할 것이라는 혁명적인 소식도 있다. 따라서 초·중·고학생들의 흥미와 성장발달 단계에 따른 특성 및 선호하는 독서자료에 대한 연구와 함께 교과과정과 연계한 양질의 도서선정에 대한 연구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도서의 질이 독서교육의 질을 판가름한다고 볼 때, 도서 유통과정 역시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상행위가 교육계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있어야만 독서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본다. 매학기 각 학교마다 책정되는 도서구입 예

산은 턱없이 부족해 학생들의 독서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장치를 마련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우선 도서의 수요자인 학생들을 위해 도서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가장 싸 값에 읽고 싶은 책, 좋은 책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서점뿐만 아니라 문구사, 동네 슈퍼에서도 책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획기적 도서유통구조 확립이 과제

지난 50여년간 '사람답게 살기 위한' 인간 교육을 위해 도서관을 중심으로 독서운동은 전개해 왔으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사무직 종사자 중 76.3%가 공공도서관을 1년에 한번도 찾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책을 읽지 않는 우리 사회풍토는 독서에 무관심한 가정교육과 초·중·고등학교 교육에서 비롯됐다.

교육부에서도 새 학교문화 창조를 위한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을 추진중이니 출판계 역시 이 정책에 호응해 좋은 책을 싸 값에 많이 공급할 수 있는 도서유통구조를 만들어 출판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한다. 이때, 양심적인 출판사의 선도적 역할이야말로 초·중·고등학교의 독서교육 활성화에 큰 몫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교육과 출판이 서로 힘을 모을 때, 학교 독서교육은 제자리를 잡을 것이다. ❖